

'포스트 코로나 전주' 미래·변화·혁신

전주시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을 치켜든 것은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그린 뉴딜을 무기로 전주만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미래를 열고, 담대한 변화와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주형 디지털·그린 뉴딜은 지속가능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인 셈이다.

▲전주의 새로운 경제엔진, 디지털·그린 뉴딜

정부는 시민들의 삶을 위흔든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도 핵심과제로 손꼽힌다. 정부는 디지털·그린뉴딜 등 한국형 뉴딜을 위해 내년도에 올해(1조 6,900억원)보다 45.6% 증가한 2조4,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그린 뉴딜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한컴·네이버·SKT 등 민간기업, 공기업, 카이스트, 지역대학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J-디지털 교육밸리'를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G 등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로컬경제 통합플랫폼과 스마트 상점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영세기업 중심의 디지털경제 기반도 구축한다.

감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뛰어놀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확산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전환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기반도 강화된다. 동시에 수소·탄소·드론·금융 등 전주경제를 끌고 갈 4대 신성장산업도 고도화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일자리 지원을 위한 긴급 공공일자리 창출 등 3대 정책도 지속 추진된다.

▲전주 특례시와 관광거점도시, 더 넓은 미래로

전주형 디지털·그린 뉴딜과 함께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전주 특례시 등 또 다른 미래동력을 만들기 위한 도전도 계속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거점도시의 경우 문화기반 지속가능 여행도시를 목표로 본격화된다. 구체적으로 △전주부성 복원·정비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마을공연·한옥마을 상설공연·전라감영을 무대로 하는 대형공연 등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구축한다. 전주 관광의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해 △독립영화의 집 건립 △종합경기장 부지 시립미술관 건립 △'예술공간, 완산벽커 1973' 조성 △옛 법원·검찰청 부지 한국문화원형콘텐츠·체험 전시관 건립 △완산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전주천 여행광장 조성 등도 추진된다. 시는 한옥마을 관광트램을 도입하고, 전통 한옥형태의 종합 관광안내소인 글로벌 웰컴센터도 건립해서 전주관광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광역시가 없어 낙후된 전북의 50년 설움을 날리고, 전북도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전주 특례시 지정도 도전의 목표점이다. 정부도 최근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 여기에 시는 전주만이 가진 문화적 자산과 가치를 토대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혁신도시 시즌2'에 발맞춰 전북도·정치권·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농생명·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전주의 또 다른 이름, 지속가능한 혁신

전주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공간·도시환경·지역환경·교통체계의 4대 분야 혁신을 위한 사업도 전개된다.

생활공간 혁신의 경우 시는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산책하듯 도서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중호수 도서관 △혁신도시·에코시티 북



뉴딜, 새로운 경제엔진

기업·대학과 핵심인재 양성
'J-디지털 교육밸리' 구축
저탄소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그린뉴딜 기반 강화
감염병 대응·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19 극복 3대 정책 지속

지속 가능 혁신 사업 전개

생활공간부터 도시환경
지역환경·교통체계 등 4대 분야

한컴커뮤니티센터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히트마중 도서관 △서화동예술마을을 예술전문도서관 △평화동 확산 숲 속 시(詩) 전문도서관 등을 조성한다. 모든 시립도서관에 아이들을 위한 야호 책 놀이터가 생기고, 완산도서관은 문화재생을 통해 '책 쓰는 도서관, 책 만드는 도서관'으로 탈바꿈된다. 도시환경 혁신의 경우 시는 호동골·아중호수 꽃길 지방정원, 한옥마을정원, 덕진공원 정

동정원, 도도정원, 종합경기장 시민의숲1963, 학산 치유의숲, 완산철봉 한빛마루공원, 팔복동 탄소 산단숲, 혁신도시 기지제 생태공원, 에코시티 백석 호수공원 등 10대 거점 정원도시 인프라를 확충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만든다. 동시에 도시공원 일몰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도시 바람길숲 조성 등도 추진된다.

시는 지역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골목길과 공공거점을 대상으로 지역재생 시범사업을 펼치고, 통합돌봄형·경제기반형·빈집정비형 등 사람과 공간의 가치를 담은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는 등 주거재생과 도시재생을 결합한 지역재생을 집중 전개한다.

끝으로 시는 △시내버스 시간선제 단계적 확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전주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안전속도 5000 속도 하향 △수소서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버스 운행관리시스템(BMS) 구축 대중교통 혁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태교통도시도 나아가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그간 사람·생태·문화의 3대 가치 위에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하고 특례시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시민과 함께 달려왔다"면서 "앞으로도 당대한 도전과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세계 어디 가나 전주에서 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를 꼭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인터뷰 - 김승수 시장



▶ 부록 - 민선7기 2년 전주시정 성과

끊임없는 도전, 대한민국 리더도시 '자리매김'

전주시는 민선7기 지난 2년 동안 사람·생태·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주다움을 무기로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리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앞장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미래세대의 꿈과 상상력, 가능성을 키워주는 더 큰 전주를 만들기 위한 기반도 확실히 쌓아올렸다.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전주발(發) 상생실현인 '착한 임대운동'과 '전주형 재난기분소득 지급',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전주시를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는 도시로 평가하기도 했다. 위기 상황에서 발현된 굳건한 사회연대와 공동체정신이 전주를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리더도시임을 널리 각인시킨 것이다.

또한 사람·생태·문화·일지리의 시정 4대 핵심가치는 대한민국 수소경제 선도도시, 대한민국 지역관광거점도시, 대한민국 통합돌봄 선도도시라는 굵직굵직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돼 5년간 국비 500억 원을 지원받아 문화와 관광을 가지고 세계와 승부하며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갈 수 있게 됐다. 시는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완주군과 함



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열쇠로 육성하는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수소경제 도시로 선정돼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을 갖게 됐다.

복지분야의 경우 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선정돼 어르신이 정든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전주형 복지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
착한 임대운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앞장
문재인 정부의 '수소산업 선도 도시' 선정



이외에도 시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야호 5대 프로젝트' △전주의 위상을 높일 전라감영 복원 △꿈꾸는 예술터, 팔복야호예술놀이터 개관 △책과 함께 노는 야호 책놀이터 조성 △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동학농민 정신 계승을 위한 녹두관 건립 △사람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전주형 주거지재생 △전통과 미래가치 품은 전주역사 전면개선 △전주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 등 주요사업을 완료하거나 본격화하면서 더 큰 미래를 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이제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끌어가는 도시다. 그 바탕에는 바로 전주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다움 토대 앞서가는 도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세계 어디 가나 전주에서 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굳건한 사회연대와 공동체 정신이 발현된 '착한 임대운동', '전주형 재난기분소득', '해고 없는 도시' 등을 통해 타개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고 이어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고, 1%의 가능성으로 시작한 특례시를 향한 꿈이 이어진 것, 코로나19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겨낸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드높은 시민의식은 전주다움의 힘을 믿고 전주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우직하게 걸어온 결과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우리 앞에는 전혀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디지털·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 담대한 변화와 지속가능한 혁신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 우뚝 서겠다"고 덧붙였다.